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탄력

무주군, ‘2026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개별공모’ 신규 지구 선정

무주군 부남면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개별공모’ 신규 지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업비로 14억 원을 확보한 무주군은 기초생활거점 1단계 사업을 통해 조성된 비단강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배후 마을까지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활동가 및 공동체 구성원으로 양성하는 등 맞춤형 관계망 구성에 집중한다. 또한 현재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진행 중인 가정경로당과 교동경로당을 작은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하게 된 만큼 부남면 주민 모두가 만족하며 즐기는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부남면은 지난 2020년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1단계)에 선정되면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무주군 부남면 비단강 문화센터 전경

2024년까지 거점시설인 부남 비단강 문화센터를 신축하고 면 소재지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비단강 문화센터는 체력단련실과 건강관리실, 주민 사랑방, 다목적 회의실 및 공유주방, 동아리방, 주민 공방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 6월부터 사회화협동조합 ‘부남’에 민간 위탁해 운영 중이다.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에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배후 마을까지 전달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무주군에는 부남면 외에도 무풍면과 적상면 등 2개 지구에 대한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2단계가 추진 중이다. 이들 지구 역시 1단계 사업을 통해 준공된 거점시설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설천면과 안성면에서는 읍면 소재지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배후 마을까지 연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의 연계·시너지 효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주민 맞춤형 문화·복지 중심 소프트웨어 사업 확장

진안군, 동향면·상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 공모 선정

진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동향면·상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이 모두 선정되며 총 40억 원(지구별 20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국 11개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진안군은 유일하게 2개면이 동시에 선정되며 사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2단계 사업은 1단계에서 조성

한 ‘동향 다움센터’와 ‘상전 365화합센터’ 등 거점시설(하드웨어)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주민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거점 중심의 서비스가 배후마을까지 확산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농촌 생활의 질

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와 사회 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 활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주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도내 검도 동호인들, 무주에 모였다

도지사배 검도대회 성료

제30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검도대회가 지난 14일과 15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검도회가 주최하고 무주군검도회가 주관한 대회에는 검도인과 관계자 등 2천여 명(연인원)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선수들은 초등부(남녀 개인 및 단체전)와 남자 중등부, 남자 고등부, 여자 청소년(중·고)부, 남자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중·장년부, 노년부, 여자부 등 중별 개인·단체 경기에서 실력을 겨뤘다.

개회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임영석 전북특별자치도검도회장, 이희재 무주군검도회장 등 내빈들이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군수는 “전북 검도인들이 실력을 겨루며 자긍심을 나누는 기회를 올해도 무주에서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제30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검도대회가 지난 14일과 15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열띤 대결을 펼치고 있다.

생각한다”라며 “검도가 호신 무술로 더 큰 사랑을 받고 주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무주가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2025 장독대’ 장수중 독서대잔치 개최

독서 골든벨·독서 토론 등 다채…전북교육청 ‘독서·인문교육 확대’ 일환

장수중학교(교장 조영진)는 지난 13일 본교 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서 행사인 ‘2025 장독대(장수중 독서대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기의 독서 습관 형성과 독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1부, 독서 골든벨에서는 최상희 작가의 ‘키의 선택’을 지정 도서로 다양한 유형의 퀴즈가 출제되었으며, 반별

대표 학생들이 참여해 지식과 집중력을 겨뤘다.

이어 진행된 2부, 독서 토론에서는 “책임을 읽는 능력은 좋은가”라는 주제로 예선을 통과한 팀들이 공개 토론을 펼쳤다. 학생들은 각자의 시각에서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와 소통의 힘을 길렀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의 10대 핵심과제 중 ‘독서·인문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독서문화

창작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추영곤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책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경험을 넓혀가는 것이 미래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독서와 인문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최훈식 장수군수가 계남면 소재 임대형 수직농장 첫 출하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둘러보고 첨단 농업 기술이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미니로메인·버터헤드 첫 출하

최훈식 장수군수, 임대형 수직농장 출하 현장 방문

장수군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형 수직농장이 지난달 1일 첫 입주를 시작하고 약 6주 만에 미니로메인 과 버터헤드 등의 작물 수확을 마치고 13일 성공적으로 첫 출하했다.

이에 최훈식 군수가 지난 13일 계남면 소재 임대형 수직농장 첫 출하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둘러보고 첨단 농업 기술이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최 군수는 출하현장에 함께한 수직농장 입주 청년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첨단 농업 기술을 활용한 수직농장 시스템이 작물 재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역 농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 수확된 작물들은 ICT 기반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온도, 습도, 광량, 영양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최적의 환경에서 재배된 것으로 고품질 농산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또한 군은 수직농장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출하는 임대형 수직농장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기술 지원과 운영 관리를 통해 전국 최초 공공형 수직농장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진안군은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의 편의 증진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격려하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 결과 최우수 사례로는 △진안 양수발전소 유지 동력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한 농촌활력과 이중경 팀장, △진안군 지일지원을 활용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과 전지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문화체육과 박진성 팀장, 김현우 주무관(지역자율형 생활체육 및 신나는 주말체육 지원 사업), △가족행복과 김주은 주무관(드림스타트 신규 아동 발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민원봉사과 이준명 주무관(특정 빈집 철거를 통한 주민생활



이중경 팀장

전지민 주무관

환경 개선)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려상에는 △농업정책과 이승은, 이미현 주무관(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작물 확대), △사회복지과 이선화 팀장, 권윤희 주무관(경로당 단체보험 가입 및 입식 식탁·의자 지원사업) △환경과 김민정 주무관(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이 이름을 올렸다.

진안군은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등급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난 6월 4일~7월 19일 진안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 및 학교 교육과정 연계 강화를 위해 관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마을여행 캠퍼'를 진행했다.

진안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여행 캠퍼’ 진행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센터장 노영권)는 지난 6월 4일~7월 19일 진안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 및 학교 교육과정 연계 강화를 위해 관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마을여행 캠퍼'를 진행했다.

이번 캠퍼는 진안교육지원청의 '2025년 찾아가는 마을 역량강화 연수'와 진안군의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캠퍼' 프로그램이 연계돼 추진되는 것으로, 기간 내 총 13회에 걸쳐 진안군 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진행된다.

지난 6월 4일에는 외사암마을과 상가파마을에서 관내 학교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으로 각 마을 탐방과 라틴바주니 만들기, 드립커피 체험 등이 진행됐다.

진안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마을에서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과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등

진안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진안군은 13일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진안군지회(회장 김춘식)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기관·단체장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현장 낭독을 시작으로 표창패 수여,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2부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공연과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 모두가 함께 어울려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전춘성 군수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직원 직무능력 향상·지역탐방 워크숍

장수군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025년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우리 지역탐방 워크숍을 운영해 공직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장수군청 소속 직원 120여명이 참여했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업무능력 강화와 더불어 지역 자원 체험을 통한 소통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업무의 효율성과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 지역의 자연자원을 직접 체험하는 ‘노하숲 및 용바우체험휴양마을 탐방’, 팀워크와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미니골프 팀빌딩’ 등이 운영되며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워크숍이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매력을 새롭게 느끼고 공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파출소,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지역 사전 점검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 장수파출소는 지난 13일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해 관내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터널 공사 현장 안전 점검 △관내 침수구역 파악 △주요 침수 도로 안정성 확인 △도로 관련 시설 정비 등이 진행됐으며, 관련 신고 접수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순찰차에 탑재된 여름철 정비 등을 점검했다.

또한 장수와 산서를 잇는 비행기재 터널 신축 공사 등을 대상으로 기상특보와 태풍을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박진수 장수파출소장은 “여름철 산사태를 포함한 각종 자연재난은 충분한 예방과 대응 준비를 통해 그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빈틈없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춰 장마철 기간 인명·재산 피해를 막고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